

Soft-tissue management for primary closure in immediate implant placement

김강우*, 장범석, 엄흥식, 이재관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잔존골의 흡수방지, 치조계의 높이와 폭경의 유지, 수술횟수의 감소와 치료기간의 단축, 좋은 심미적 결과를 가지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시 임플란트와 골의 gap이 2mm(critical gap distance)보다 작을 경우 별도의 재생 술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발치 부위에 골 결손이 발견되며, 골 유도 재생술을 필요로 한다. 골 유도 재생술을 시행할 경우 차폐막의 노출은 골 생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연조직의 폐쇄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치와 부위는 연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감장 절개를 통한 피관의 신전만으로는 일차폐쇄를 이루기 힘들다. 그래서 다른 부위로 부터의 조직 이식이 흔히 사용된다.

연조직 이식법에는 크게 유리 연조직 이식법과 유경 연조직 이식법이 있으며, 유리 연조직 이식법으로는 유리 치은 이식술, 유리 결합조직 이식술이 있으며, 유경 연조직 이식법으로는 측방 피관 이동, 회전 구개측 피관, 구개 신전 피관, 혈관개재 골막-결합조직 이식술 등이 있다.

연구재료 및 방법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중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의 적응증에 해당하며 임플란트 식립시 골 유도 재생술이 필요한 경우, 연조직의 일차폐쇄를 위하여 다양한 연조직 이식법을 시행한 후 임상적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연조직 이식술을 통해 수술시 일차폐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식된 조직은 약간의 괴사를 보였으나, 차폐막과 임플란트의 노출 없이 양호한 결과를 유지하였다.

결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시 연조직 이식법을 이용하여 일차폐쇄를 이룰 수 있었으며, 안정된 일차폐쇄를 통하여 임플란트와 골 유도 재생술의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었다.